
한-아프리카 신산업 협력 분야와 과제

2024. 6. 3

정 재 욱



서강대학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젊은 대륙 아프리카”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음.

-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륙으로 알려졌던 아프리카가 최근 풍부한 자원과 젊은 인구, 지리적 이점 등 높은 성장잠재력을 가진 대륙으로 재평가받고 있음.
- * 2014~23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상위 20위 국가 중 9개가 아프리카에 위치

순위	국가	10년간 연평균 성장률
...		...
3	에티오피아	8.2%
...		...
5	르완다	6.6%
...		...
7	코트디부아르	6.5%
...		...
10	기니	6.1%
...		...
14	탄자니아	6.0%
...		...
17	지부티	5.4%
18	베냉	5.4%
19	니제르	5.3%
20	세네갈	5.3%

자료 : IMF WEO DB(2024.4)

- * fDi Markets와 IMF가 발표한 2024년 주목할만한 해외투자 10대 유망국 중 3개 아프리카 국가 포함(케냐(3위), 나미비아(5위), 모로코(8위))
- * 아프리카의 생산가능노동인구(15~64세)가 2020년 7.5억 명에서 2050년 15.6억 명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19년 5월, 12억 인구·GDP 3조 규모의 아프리카 시장을 하나의 교역권으로 묶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가 출범
- * 석유 및 천연가스(전 세계 매장량의 8%), 리튬, 코발트, 망간 등 자원 보유
- 그러나 한국의 대 아프리카 경제 협력관계는 미국이나 유럽은 물론 중국, 일본 등 주요국 대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 한국의 대 세계 교역 중 아프리카의 비중은 1.3%(’23년, 무역협회)
- * 한국의 대 세계 직접투자 중 아프리카의 비중은 0.5%(’23년, 수출입은행)

■ [연구의 목적]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아프리카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유망 신산업 분야를 소개하고 실현 과제를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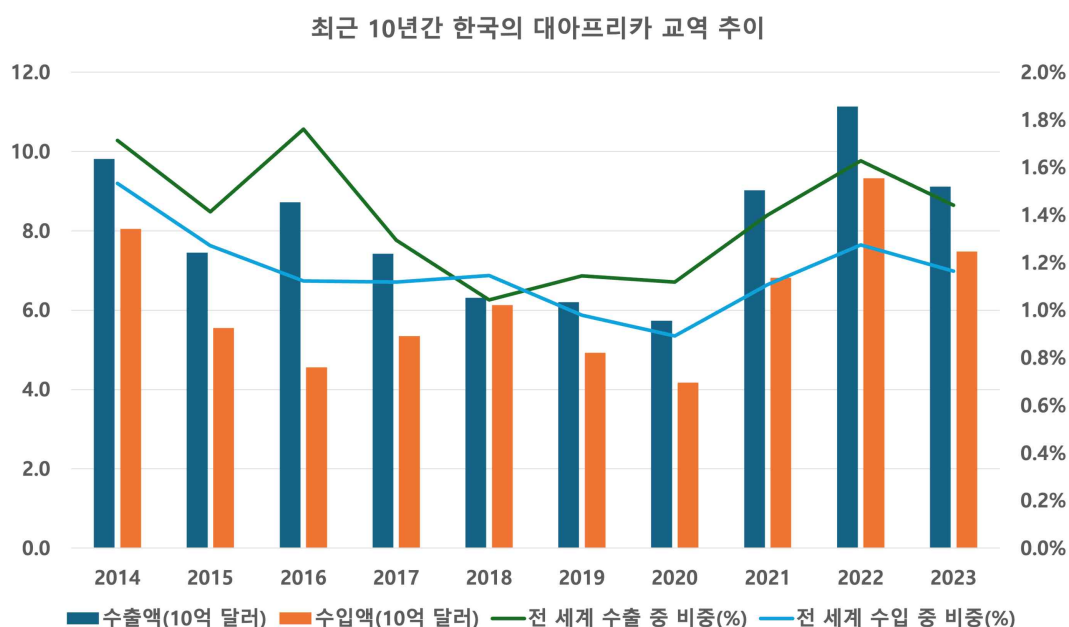
- 아프리카의 성장 잠재성과 한-아프리카 경제 협력 현황을 검토
- AfCFTA 출범의 의의와 전망을 정리하고 경제 협력의 기회가 유망한 아프리카 주요 신산업 분야를 소개
- 주요국의 대 아프리카 경제 협력 전략에 대한 분석을 참고하여 한-아프리카 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

2. 글로벌 경제의 마지막 성장동력, “젊은 아프리카”

- 세계에서 가장 젊은 대륙으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높고 성장 속도가 빠름
 - UN(2022) 발표 '24년 아프리카 인구는 14.8억 명(전 세계 인구 중 18.3%)이나 매년 2.3%씩 증가하여 '50년 25억 명(25.5%)에 도달할 전망
 - '24년 아프리카의 중위(median) 나이는 19세(세계 중위 나이 30.7세, 한국 중위 나이 45.1세),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전체 인구의 56.9%인 8.4억 명
 - '50년 생산가능인구는 전체 인구의 62.6%인 15.6억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
 - * 동기간 인도 생산가능인구: 9.3억 명→11억 명, 중국: 10.4억 명→8.6억 명
- 석유 및 천연가스를 비롯하여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핵심 광물 자원을 보유
 - BP(2023) 추정 '21년 아프리카 석유 생산량은 일산 7백만 배럴(전 세계 생산량의 7.5%), 천연가스 생산량은 2,490억 입방미터(전 세계 생산량의 6.2%)
 - 미국 지질 조사국 발표(2024)에 따르면 산업부 지정 10대 전략핵심광물(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및 5대 희토류)의 아프리카 부존량이 상당함.
 - * 콩고민주공화국은 전 세계 코발트 생산량의 74%를 공급
 -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전 세계 망간 생산량의 36%, 가봉은 23%를 공급
 - * 짐바브웨는 전 세계 리튬 생산량의 19%를 공급
 - 태양광, 지열, 수력, 풍력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이 풍부하여 최근 주목받고 있는 그린 수소(green hydrogen) 개발 잠재력이 높음
- 아프리카는 '24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경제성장이 빠른 대륙으로 전망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2024)에 따르면 경제성장률 전망 상위 20개국 중 11개국이 아프리카 국가(니제르(11.2%), 세네갈(8.2%), 리비아(7.9%) 등)
 - 자원 수출국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던 과거와 달리 경제 다각화, 전략적 인프라 투자,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창업,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 증가가 성장 견인
- 아프리카연합(AU)과 지역별 역내공동체 중심으로 경제 통합을 지속해서 추진
 - 과거 여러 아프리카 국가가 정치·외교적 갈등과 민족 간 내전으로 오랫동안 빈곤에 시달렸으나 점차 정치적 안정을 찾고 있음
 - 아프리카 중심주의에 따라 '63년 출범한 아프리카단결기구(OAU)와 '91년 아프리카경제공동체(AEC) 추진을 천명한 아부자 조약을 승계한 AU가 창설('02년)되어 역내 평화와 안정, 경제 발전과 통합을 추진
 - '12년 AU가 아프리카 대륙을 포괄하는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를 결의하고 54개 회원국(에리트레아 제외)이 참여하는 AfCFTA를 '19년 출범
- 아프리카는 지리적으로 유럽 및 중동 지역과 맞닿아 있고 미 대륙 및 인도와 해상 교역이 가능한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
 - 글로벌 양대 시장인 미국과 유럽 시장과 가깝고 미국의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유럽의 경제동반자협정(EPA) 및 최빈개발도상국특혜무역조치(EBA) 등을 활용한 시장 접근에 유리

3. 한-아프리카 경제 협력 현황

- [교역] 한-아프리카 경제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對 아프리카 교역 비중은 대 세계 교역 규모의 약 1%에 불과
- '23년 한국의 대 아프리카 수출은 91억 달러, 수입은 75억 달러로 16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자료: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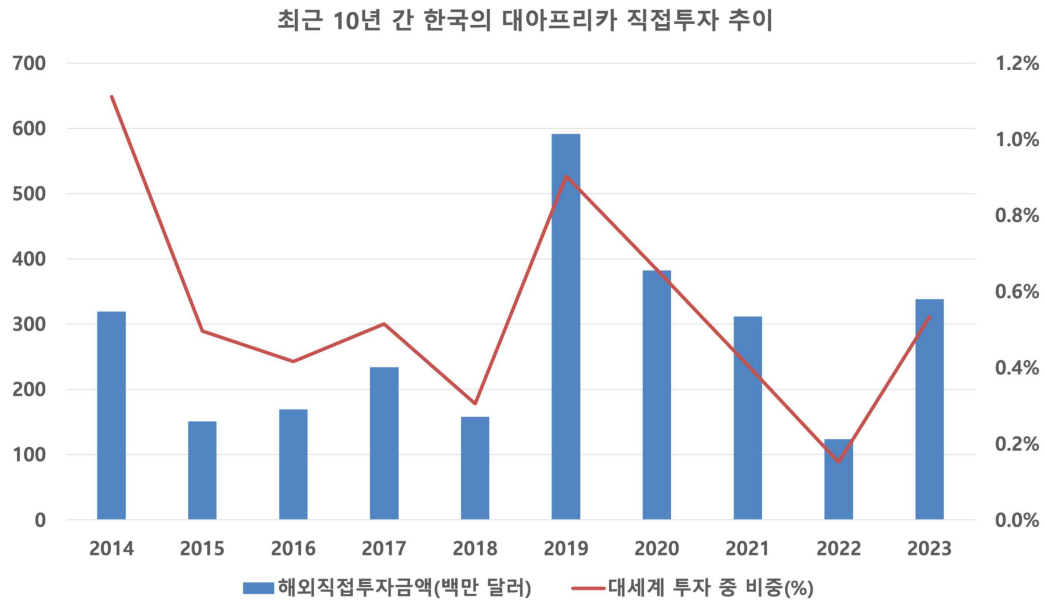
- '23년 기준 한국의 주요 교역국은 아프리카 3대 경제권인 남아공, 나이지리아, 이집트와 편의치적을 이용한 선박 수출이 기록되는 라이베리아, 자원 수출국인 알제리, 콩고민주공화국, 모잠비크 등임

〈표〉 한국의 아프리카 10대 교역국 (2023년)

국가명	수출액 (백만 달러)	수입액 (백만 달러)	교역액 (백만 달러)
남아프리카공화국	884	3,489	4,373
라이베리아	4,034	7	4,041
알제리	284	3,153	3,437
이집트	1,335	630	1,965
나이지리아	603	1,028	1,631
토고	1,031	56	1,087
콩고민주공화국	184	717	901
모잠비크	94	764	858
리비아	572	46	618
튀니지	140	463	6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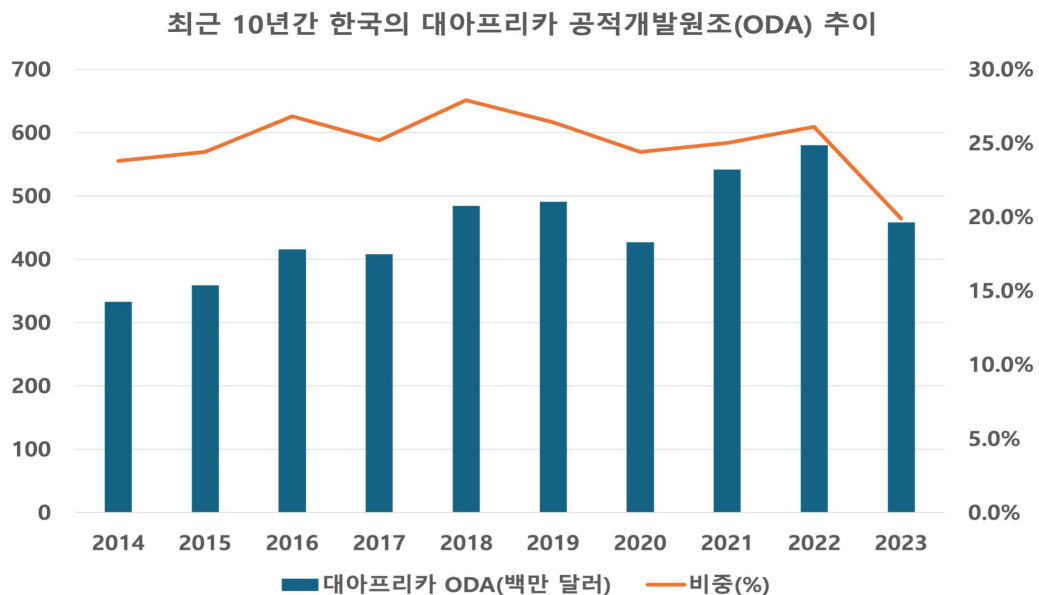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 [투자] 한국의 대 아프리카 직접투자는 최근 10년간 누적액 27.8억 달러로 대 세계 직접투자액의 0.5% 수준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개발협력] 아프리카는 아시아 지역에 이어 한국의 두 번째 개발협력 지원 대상으로 최근 10년간 누적 지원액은 45억 달러임



- 한-아프리카 경제 협력 관계는 지리적으로 멀고 낮은 시장과 제도, 과거 핵심 산업인 자원 및 에너지 부문의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며 일부 지역 및 국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4.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출범

■ [배경 및 의의] AfCFTA는 아프리카 대륙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 아프리카의 역외 수출 구조 변화를 모색하고 역내 교역 확대를 통한 아프리카 산업 발전을 목표로 추진됨

- UN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20년 기준 아프리카의 역내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 중 17.4%로 유럽(68.0%), 아시아(58.5%), 아메리카(52.6%)의 역내 교역 비중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역내 수입 비중도 14.5%에 불과함
- 석유, 광물, 농수산물 등 원자재 수출이 아프리카 역외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경제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변동에 취약하고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도 매우 낮음
- 역내 교역의 경우 가공품의 교역 비중이 1차 상품보다 높으나,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총 교역 중 역내 교역 비중이 매우 낮음.
- 이런 배경에서 AfCFTA는 REC별 상이한 정책 및 규정을 통합하고, 관세 및 비관세 장벽과 무역기술장벽, 위생 및 검역, 서비스 무역 관련 무역장벽 등의 분야를 다루며 거버넌스 개선과 역내무역 활성화를 위해 출범

■ [경과 및 현황] '19년 5월 AfCFTA가 정식 발효되었으나 전면적인 시행이 여러 이유로 지연되어 '24년에서야 실질적인 시행이 예상됨

- AfCFTA는 일반적인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협정 자체가 매우 포괄적이며 세부 내용은 후속 절차를 통해 단계적으로 협의와 결정이 되는 특징을 보임
- '18년 키갈리 AU 정상회의에서 44개국 정상이 서명한 AfCFTA 출범 협정에 따라 회원국의 과반수가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한 지 30일 후인 '19년 5월, AfCFTA가 정식 발효함
- '24년 6월 현재, 에리트레아를 제외한 54개 AU 회원국이 AfCFTA에 서명하였고 이 중 47개국이 비준을 완료함
- '19년 7월 AU가 AfCFTA의 공식 출범을 선언하고 AfCFTA를 '21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준비하였으나 코로나-19 기간 동안 실무적 준비가 지연되면서 '20년 8월에서야 가나 아크라에 AfCFTA 사무국이 개설
- '22년 10월, AfCFTA 사무국이 시범운영(Guided Trade Initiative)을 시작하면서 가나 등 8개국*이 우선 96개 품목에 대해 AfCFTA를 적용한 교역을 시작
- * 가나, 르완다, 모리셔스, 이집트,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튀니지
- 이후 알제리 등이 GTI에 참여하였고 '24년 1월 31일, 아프리카 최대 교역국인 남아공이 시범운영을 개시
- 사무국은 '24년 내로 20여 국이 추가로 GTI에 참여할 계획이며 양허 적용 품목도 점차 확대하겠다고 발표
- 1단계 협상에서 논의된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외에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등에 대한 2단계 협상이 진행 중

■ [기대효과] AfCFTA가 본격화되면서 아프리카 역내 교역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 규모 및 성장 속도로 볼 때 아프리카 시장을 겨냥한 제조업의 발전과 역내 가치사슬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

- AfCFTA 협정에 따라 역내 상품 무역 관세의 경우 관세선 기준 90%까지 5~10년 내에 완전히 철폐되며 기타 민감품목(7%) 및 예외품목(3%)에 대한 관세도 국가별 상황에 따라 5~13년의 유예기간을 걸친 후에 인하
- 시장 개방 외에도 WTO 수준의 통관 행정의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무역 촉진 정책, 무역상 기술 장벽(TBT) 및 동식물 위생 및 검역 조치(SPS), 무역 규제조치, 분쟁 해결 절차 등에 대한 합의를 포함
- 그간 경과에서 확인한 것처럼 온전한 수준에서 AfCFTA가 시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과정에서 아프리카 역내외 교역에서 실질적인 장애가 되었던 통관 및 물류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AfCFTA 회원국 간 교역 외에 아프리카의 역외 교역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됨
- 세계은행은 AfCFTA의 이행이 '35년까지 아프리카의 실질 소득을 7%, 수출을 5,600억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UN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는 '45년까지 아프리카 역내 교역이 약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활용방안] AfCFTA의 활성화에 따른 역내 시장의 확대 기회를 염두에 두고 현지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과 AfCFTA의 준비 및 활용 과정에서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과거 한국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목적은 주로 아프리카에서 무관세 수출이 가능한 유럽이나 미국 시장을 고려한 제조업 투자나 현지 인프라 및 플랜트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제한되어 있었음
- 최근 아프리카 인구와 경제 모두 빠르게 성장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늘고 있어 아프리카 내수 시장의 가치 또한 증가하고 있음
- AfCFTA 사무국에서 집중적으로 AfCFTA를 활용하는 역내 가치사슬을 육성하고자 하는 4대 산업은 농산물 가공업, 의약품 제조업, 수송 및 물류 서비스업, 자동차 제조업이며, AfDB나 아프리카수출입은행(Afreximbank) 또한 자동차 제조업을 포함한 역내 제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 AfCFTA의 준비 및 활용에 필요한 교역, 통관 및 물류 인프라 및 관련 시스템 구축 사업과 전자상거래, 온라인마케팅 등 관련 서비스 시장이 확대 가능
- 특히 서비스 분야의 경우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들이 역외 시장 개방을 하지 않고 있을뿐더러 WTO 서비스 국내 규제 규범(Joint Initiative on Services Domestic Regulation)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AfCFTA를 통해 서비스 역내 시장이 개방되면서 관련 국내외 규제 개혁 및 서비스 수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5. 아프리카의 유망 신산업

가. 소비자 내구재 제조업

■ 일정 수준의 소비자 내구재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의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내구재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 시장 성장이 예상됨

- 아프리카의 인구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자동차, 휴대전화, 가전제품 등의 소비자 내구재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의 규모 또한 성장하고 있음
- KIEP(2017)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자동차와 휴대전화 구매력을 갖춘 소비자의 규모가 연평균 4% 이상 증가하고, 일부 고성장 국가를 중심으로 중산층의 규모가 더 빠르게 커질 것으로 전망

■ 대표적으로 승용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 전망

- Statista Market Insights(2023)는 약 250억 달러 규모인 아프리카 승용차 시장이 향후 5년간 연평균 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특히, 최근 구매력 증가에 따라 SUV와 전기차/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수요 증가에 주목
- 호주의 Whichcar가 추정한 아프리카의 1,000명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58대(세계 평균 1,000명당 182대,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평균 140대)로 다른 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거나 아프리카 중산층의 형성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UN환경계획(2020)에 따르면 '15~'18년 사이 수출된 1,400만 대 중고 경량자동차(light-duty vehicle) 중 40%가 아프리카에서 수입되었으며, 최근 환경 문제로 인해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중고차 수입을 규제하기 시작함
- 아프리카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의 점유율(승용차 기준 약 19%)은 최상위권이며 현대 코나는 '22년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였음(IEA, 2023)
- 아프리카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남아공과 모로코로 그간 유럽이나 미국 시장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였으나 점차 내수 시장 공급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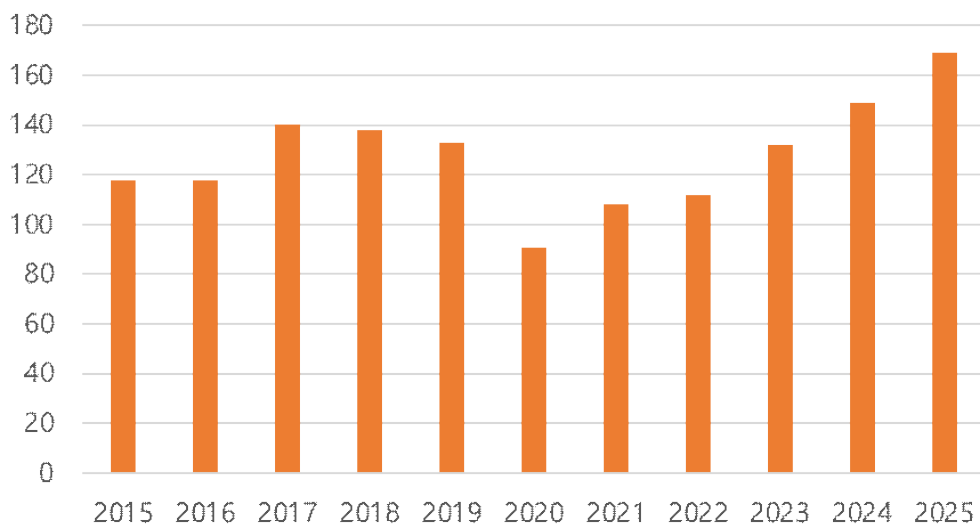
■ 휴대전화, 가전제품 등의 소비재 시장도 가파른 성장세

- 유선통신망 구축이 원활하지 않은 아프리카의 특성 때문에 휴대전화의 보급이 일찍 이루어졌으며 모바일 기반 파생 서비스 또한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음
- GSMA(2024)에 따르면 '23년 기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모바일 가입자 비중은 44%이며 이 중 50%이상의 가입자가 3G를 사용하고 있는데 '30년까지 가입자 비중은 49%까지 증가하고 4G 및 5G 보급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 휴대전화 기기 시장 외에도 모바일 교육, 금융, 의료 등의 IT기반 관련 서비스 시장도 확대되고 있어 다양한 영역에서 스타트업이 참여하고 있음
- 배터리, 회로 기판 제조에 필요한 코발트, 구리, 흑연, 리튬 등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고 전자제품 생산에 필요한 저렴한 노동 공급 측면에서도 유리함
- 소비재 내구재 제조업의 경우 생산설비 운영에 필요한 전기와 노동력, 기타 공공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이 필수적이므로 진출 가능한 지역과 국가를 탐색할 때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나. 광물 및 에너지 산업

- 아프리카는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며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신소재 관련 광물의 공급지로 유망
 - 아프리카는 세계 코발트의 60% 이상, 백금류의 75%, 다이아몬드의 30% 이상을 생산하고 있음
 -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세계 최대의 금, 백금류 생산국이며 콩고민주공화국은 세계 최대의 코발트 생산국, 기니는 세계 최대의 보크사이트 매장량을 보유
 - 나이지리아, 앙골라, 알제리 등은 아프리카의 주요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국으로 전세계 석유 및 천연가스의 약 7%를 공급
- 최근 자원 민족주의의 확산과 국내 경제 성장 수요의 증가로 해외 자원 개발 기업에 대한 현지 정부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특히 과거 만연했던 정부 부패 문제가 점차 해소되는 반면, 자원 개발에 아프리카 기업의 참여나 고용을 의무화하는 현지화 정책이 강조되고 있음
 - 또한 자원 산업의 발달로 인한 환경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져 자원 채굴로 인한 환경 오염이나 지역사회 갈등 문제 해소에 주목
 - 그동안 아프리카 자원 수출국가들이 자원의 수출에 의존하다보니 글로벌 원자재 시장 가격 변화에 취약하고 고용 효과도 크지 않았던 반면, 최근에는 자원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
- 전력망 및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여 자원 개발이나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침체되었던 아프리카 인프라 및 플랜트 시장이 빠르게 회복하면서 연평균 13%의 성장세가 전망됨

아프리카 플랜트 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



자료: 한국플랜트산업협회(2023); 단위: 십억 달러

- 플랜트산업협회(2023)에 따르면, 아프리카 플랜트 부문별 시장 구성은 산업설비 플랜트 시장(47%), 석유 및 가스(28%), 발전 및 담수화 설비(20%) 순임
- 아프리카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산업 설비 및 전력 수요도 높아져 발전용량 확충 및 송배전망 구축 사업이 시급함
- BMI(2023)는 2035년까지 아프리카 지역에 100GW(EIA, 2023), 향후 10년 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에만 25G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다. ICT 기반 스타트업

■ 모바일 기기가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아프리카의 ICT 기반 스타트업 생태계는 빠르게 성장

- ICT 기술은 아프리카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회 인프라 구조의 한계를 뛰어넘어(leap-frogging) 새로운 산업을 형성하고 있음
- 모바일 기반 금융, 의료, 교육, 농업, 물류 및 공급망 관리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모바일 기반 ICT가 활용되고 있음
- 아프리카의 디지털 혁신과 창업 환경을 지원하는 혁신 허브와 액셀러레이터가 대륙 전역에 600개 이상 존재.

■ 아프리카의 핀테크 산업은 금융시스템의 주력으로 안착

- 타 지역에서 은행 등 기존 금융망의 확장 형태로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면 아프리카의 경우 전통적 금융망의 부재를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 대신함
- 동아프리카의 주요 모바일 서비스 기업인 M-Pesa는 모바일 결제, 디지털 머니, 저축, 대출, 보험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금융 포용성을 크게 확대
- '22년 기준 아프리카에는 5억 개 이상의 모바일 머니 계좌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금융 포용성을 크게 확대시킴.

■ 모바일 헬스 산업의 성장은 아프리카의 부족한 보건의료 인프라를 대체

- 과거 아프리카의 성장을 가로막았던 열악한 보건의료 인프라의 한계속에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를 모바일 기술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이 대신 충족
-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원격 진료, AI-기반 진단도구, 의료 공급망 관리 등 디지털 헬스 솔루션 채택이 가속화

■ 디지털 교육 플랫폼이 확산되면서 교육의 접근성 또한 개선

- 전통적인 교육 시설 외에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중심으로 코딩 및 IT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면서 새로운 스타트업의 등장을 촉진

■ 아프리카의 거대한 시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국경을 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21년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1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한 아프리카 스타트업이 112개, 전체 규모는 약 40억 달러로 평가
- 남아공, 나이지리아, 케냐, 이집트 등 일정 수준의 내수 서비스 시장 수요가

- 있고 기술 수준이 확보된 국가를 중심으로 스타트업이 빠른 속도로 등장
- '23년 초 기준 아프리카의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은 11곳이나 됨
 - '16년에 설립된 나이지리아의 온라인 결제 플랫폼 기업 Flutterwave는 기존에 막대한 수수료로 환전이나 해외송금이 어려웠던 아프리카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며 PayPal등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21년 시리즈 C 라운드에서 1억 7천만 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약 10억 달러 규모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음
 - '14년에 설립된 Zipline은 드론을 통한 의료 물품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격지의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21년 시리즈 E 라운드에서 2억 5천만 달러 투자를 유치하여 기업 가치를 29억 달러로 평가받음
 - 아프리카 정부 또한 이런 ICT 기반 스타트업의 서비스가 부족한 공공서비스를 대체하는 역할에 주목하며 적극적으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세제 혜택 및 지적재산권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라. 그린 테크놀로지

- 다른 지역에 비해 기후위기에 취약한 아프리카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그린 테크놀로지를 적극 도입하고 있음
 - 탄소 배출 감소를 통한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아프리카의 부족한 에너지 인프라를 극복하여 에너지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린 테크놀로지가 필수적
- 2050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프리카에 풍부한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발전 수요가 큼
 - KIEP(2023)에 따르면 아프리카는 태양에너지 발전 잠재성이 가장 높은 대륙이지만 아직까지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 용량에서는 가장 낮음
 - 북아프리카와 남아공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이 빠르게 도입되고 타 지역에서도 태양광, 수력, 풍력, 지열 발전 등 다양한 녹색 발전 인프라 수요가 증가
 - 녹색 에너지를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 수소 생산 잠재성도 커 미국, 유럽, 중국 등 많은 에너지 기업들이 아프리카에 관련 투자를 확대
- 아프리카에서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타격을 입고 있는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후스마트농업(CSA) 기술 또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수자원 관리, 토양 보전, 작물 다양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데이터 기반 농작물 관리 등을 포괄적으로 수행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식량 안보를 강화
 -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탄소 배출을 감소시켜 지속가능한 농업을 개발하는데도 도움
 - 전통적인 개발협력 형태의 농업 기술 보급 외에도 최근 중동 국가들이 식량 안보를 위해 아프리카에 대한 농업 투자를 확대하면서 관련 기술 수요가 증가

〈표〉 한국 기업의 아프리카 경제협력 유망 분야 및 국가

국가	인구 (‘24년, 백만 명)	1인당 GDP (‘23년, 달러)	최근10년간 연평균성장률(%)	주요 교역 품목 (수출/수입)	투자 유망 분야
가나	33.7	2,318	4.0	금, 코코아, 석유 자동차, 연료, 쌀	농가공, ICT, 섬유 의류, 에너지
나이지리아	227.7	1,688	2.0	석유, 천연가스, 코코아 연료, 자동차, 밀	석유 및 가스, ICT, 인프라
남아공	62.5	6,138	0.9	광물, 자동차 자동차, 연료	광물, 에너지, 자동차, ICT, 그린
이집트	107.8	3,728	4.4	석유, 금, 집적회로 자동차, 연료, 밀	에너지, 섬유 의류, 농가공, ICT, 그린
모로코	37.4	3,889	2.4	자동차, 비료, 인산 연료, 밀, 자동차	자동차, 그린, 항공우주, 농가공, ICT
에티오피아	107.4	1,511	8.2	커피, 화훼류 연료, 자동차, 의약품	농가공, 섬유 의류, 그린
케냐	52.4	2,113	4.6	차, 커피, 화훼류 연료, 자동차, 밀	농가공, ICT, 섬유 의류, 그린
탄자니아	65.2	1,254	6.0	금, 커피, 담배 연료, 자동차, 밀	광물, 농가공, 그린

자료: IMF, OEC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6. 주요국의 대 아프리카 경제협력 정책 현황

가. 미국

- 미국은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을 통해 그동안 아프리카 최빈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에 대해 미국 시장에 대한 무관세 접근을 제공하여 아프리카의 경제성장과 무역 확대를 촉진
 - 미국은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무역특혜를 제공하는 일반무역특혜관세제도(GSP) 외에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무역특혜를 확대하는 AGOA를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GSP가 적용되는 제품외에 의류 및 신발류 등 아프리카 저개발국가의 비교우위 상품에 대해서도 무역특혜를 제공하며 원산지 규정도 포괄적으로 적용
 - 무역협정이 아닌 미국의 국내 무역법의 형태로 시행이 되어 미국이 매년 수혜국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수혜 여부를 결정한다는 특징
 - '24년 현재 AGOA 수혜대상국은 아프리카 31개국
 - '23년 11월 남아공에서 제20회 AGOA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25년 9월 만료 예정인 현재의 AGOA를 10~15년 가량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 중임
 - 동아프리카 및 남아프리카 국가들이 AGOA 특혜를 활용하여 섬유 및 의류 산업을 육성하고 대미 수출을 크게 확대
- 무역특혜 외에 미-아프리카 간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Prosper Africa를 통해 아프리카와 경제협력 확대를 추진
 - '19년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대아프리카 정책으로 시작된 Prosper Africa는 개발협력을 넘어 양자간 상호호혜적인 무역 투자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 개혁, 금융 지원, 비즈니스 기회 확대 등을 추진
 - Prosper Africa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디지털 변화 이니셔티브(DTA)는 아프리카에서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결성 강화, 기술 지원, 혁신 허브 구축 등을 목표로 추진
- 미국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상호존중, 공동이익, 가치의 원칙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을 증대하고 있음
 - '22년 12월 워싱턴에서 미국-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약 8년만에 개최되어 49개 아프리카 국가(45개 정상급 인사)가 참여
 - 정상회의를 계기로 향후 3년간 55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약속하고 글로벌 문제 공동 해결, AU의 G20 가입을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제기구내 대표성 강화, 식량안보 위기 공동 대응, 기후 변화 공동 대응 등의 내용을 담은 미국-아프리카 파트너십 비전선언을 발표
 - '24년 7월 보츠와나에서 미국-아프리카 비즈니스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양자간 무역 및 투자 확대, 에너지 협력, 인프라 개발, 디지털 경제 활성화 등이 논의될 예정

- 최근 미-중 간 기술패권경쟁의 영향으로 양국의 핵심광물 확보 경쟁이 아프리카에서도 심화되고 있음
- 최근 미국은 중국의 아프리카 핵심 광물 독점을 막기 위해 아프리카 광물부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22년 미-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콩고민주공화국-잠비아 간 이차전지 배터리 공급망 MOU를 체결
- 중국의 핵심 광물 공급망 장악과 미국의 그린 전환 관련 광물 공급망 취약성 해소를 위해 '22년 6월 13개국이 참여하는 광물 안보 파트너십(MSP)을 출범

나. EU

- EU는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양자간 무역협정인 경제동반자협정(EPA)과 무역특혜조치(GSP, GSP+, EBA)를 모두 시행하여 유럽-아프리카 무역 및 투자 확대를 통한 아프리카 경제 발전을 지원
- EU는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GSP '71년 도입하고 10년을 주기로 평가를 거쳐 수정 및 연장을 결정하고 있음
- EU의 전체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무역특혜를 제공하는 일반GSP, 핵심 인권, 노동권, 반부패, 환경 등 27개 주요 국제 규약을 비준 및 이행하는 저개발국가에게 추가적인 관세선 기준 66% 품목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GSP+,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해 만료시한을 두지 않고 무기를 제외한 모든 품목(Everything But Arms)에 대한 관세 및 쿼터를 면제하는 EBA로 GSP를 세분하여 적용
- EU는 일방조치로 시행되는 GSP 외에 아프리카, 카리브해연안, 태평양(ACP) 지역 국가와 양자간 무역협정의 형태로 시행되는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시행
- EPA는 유럽의 구 식민지 국가들과 관계 모색을 위해 시작된 야운데-로메 협정 체제를 WTO체제에 부합하도록 전환(코토누 협정)하기 위해 양측의 상호주의에 기반한 양자간 무역협정의 형태로 추진됨
- 양자간 무역협정의 형태이지만, EU의 시장은 전면 개방하는 반면 협정대상국의 시장은 점진적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비대칭적 무역자유화라는 특징을 가짐
- 통상 외에도 전반적인 경제 협력과 지속가능한 개발 협력 의제를 포괄하며 EP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협의제도 운영함
- 지역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아프리카 5개 권역을 나누어 역내 경제공동체 단위로 EPA를 추진하였으나 역내 아프리카 국가 간의 이해관계의 차이로 EPA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도 발생
- * 최빈개발도상국의 경우 EBA 수혜 대상이기 때문에 EPA 추진 유인이 별로 없는 반면 저소득국가의 경우 유럽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는 EPA가 필수적임
- * 이에 따라 EPA는 초기에 지역 단위로 추진되었으나 현재는 개별 국가별로 EPA를 비준하는 경우 임시협정의 형태로 적용하고 있으며 코트디부아르, 가나, 케냐, 동남부아프리카 5개국, 남부아프리카 6개국 등이 임시협정의 형태로 EPA를 활용

- EU는 무역특혜 외에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 투자 패키지인 Global Gateway, 농업 및 식량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등을 추진하고 있음
 - Global Gateway 아프리카-유럽 투자 패키지는 아프리카의 녹색 전환, 디지털 전환, 지속 가능한 성장, 평화와 안보, 인적 자원 개발을 목표로 '30년까지 총 1,500억 유로의 투자 및 지원을 하는 계획임
 - 농업, 식량 안보,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 협력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아프리카와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있음
- EU도 아프리카와 3년 마다 정기적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경제협력과 상호 호혜적 관계 개선을 논의
 - '22년 브뤼셀에서 개최된 6차 EU-AU 정상회의에는 27개 EU 회원국과 40개 AU 회원국 정상이 참여하여 개발금융, 보건의료 및 백신생산, 농업 및 지속가능한 개발, 교육·문화·직업훈련, 이주 및 이동성, 민간 산업 지원 및 경제통합, 평화 및 안보,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 디지털 및 교통 연결성 등을 논의
 - 양 연합은 '공동비전 2030'을 발표하고 EU-아프리카 공동의 가치와 이익 실현, 두 대륙 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Global Gateway 투자 패키지, 이주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력, 글로벌 주요 이슈에 대한 공동의 노력 등을 합의함

다. 중국

- 중국은 1991년부터 외교부장(장관)의 새해 첫 방문지로 아프리카를 순방하는 전통을 이어올 만큼 아프리카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00년부터 3년마다 정상급 협의체인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을 개최하고 있음
 - '24년에도 왕이 외교부장이 이집트, 튀니지, 토고, 코트디부아르를 순방함
 - '24년 9차 FOCAC을 베이징에서 개최 예정이며, '21년 다카르에서 열린 지난 8차 포럼에서는 중국-아프리카 2035 비전을 채택하고 향후 15년간 양측의 보건의료, 투자, 교역, 산업화, 인프라, 농업 및 식량안보, 기후변화, 평화와 안보 부문의 협력 프레임워크를 설정
- 신 실크로드 전략 구상인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막대한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음
 -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유상 혹은 무상원조의 형태로 아프리카의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무역 관계를 확대
 - 아프리카 국가들은 인프라 구축 수요는 높지만 국가신용등급이 낮아 일반적인 해외 개발금융이나 민간금융으로 이를 충족할 만한 투자를 조달하기 어렵다보니 중국의 일대일로 투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음
 - 이런 일대일로 사업 방식에 대해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채권국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프리카의 상업적 양보를 얻어내고 있다고 비판

- 이런 비판에 대해 중국은 지난 8차 FOCAC에서 아프리카 국가가 설정한 개발 경로를 간섭하지 않고 중국의 뜻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
-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리튬, 코발트 등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광범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생산된 광물 자원을 수송하는데도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구축한 물류 인프라를 활용
- 중국이 '09년 미국을 제치고 아프리카 최대 무역국으로 부상한 이후, '22년 중국과 아프리카 간 교역액은 약 2,600억 달러에 달하며 중국의 공산품을 아프리카가 수입하고 아프리카의 광물과 원자재를 중국과 수입하는 교역구조가 형성되어 있음
- 자원 확보나 인프라 투자 외에도 금융, 의료, 농업, 전자상거래, 제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 아프리카의 높은 대중 무역 및 투자 의존도 때문에 최근 중국의 경기부진의 여파로 아프리카의 교역 및 경제성장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라. 일본

■ 일본은 아프리카와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93년 도쿄국제아프리카개발회의(TICAD)를 시작하였고 '13년부터 3년마다 일본과 아프리카를 번갈아가며 진행하는 정상회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

- '22년 튀니지에서 개최된 TICAD 8에서 일본은 향후 3년간 아프리카의 인프라 및 인적 자원 개발과 녹색 전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총 3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함
- 일본도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건전한 개발 자금 조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의 '부채의 덫'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AfDB와 함께 50억 달러의 공동 자금을 조성하고 건전한 부채 관리를 촉진하는 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최대 10억 달러의 특별 대출 제공을 약속함
- 도로, 항만, 전력망 등의 필수 인프라에 대한 투자 외에도 아프리카 내 지일 인사를 양성하는 한편, 일본 내 아프리카 전문가를 육성하여 일-아프리카 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프리카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자 함
- 아프리카에서의 창업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과 아프리카의 청년들이 참여하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Next Innovation with Japan (NINJA)'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본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의 스타트업을 지원하여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

■ 일본 또한 아프리카의 주요 광물 자원 부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 '23년 8월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이 아프리카 광물 부국 5개국(나미비아, 앙골라, 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 마다가스카르)을 순방하는 등 아프리카 광물 협력을 위한 정부 고위급 접촉을 확대

- 일본-아프리카 정부 기관간 협정 체결 외에도 민-관 공동으로 일본-아프리카 광물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을 시행

7.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제언

■ [맞춤형 협력 전략] 아프리카 대륙이라는 단일한 대상이 아니라 경제발전 수준, 산업적 특성, 문화적 배경 등에 따라 지역 및 국가별 특성과 수요가 반영된 세분화된 맞춤형 경제협력 전략이 필요함

- 과거 한국의 대아프리카 경제협력 정책은 개발협력 중심의 좁은 의미의 외교 정책과 큰 차이 없이 한국의 필요에 따라 단발성으로 시행된 경향이 있어 경제협력 전략의 지속 가능성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음
- 제한된 개발협력 공적자원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영역을 대상으로 협력이 이루어지다보니 아프리카 각국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각 국의 경제발전 수준과 시장의 성장 방향이 다르고 협력 수요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세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의 질적·양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음
- 많은 국가들이 글로벌 경제의 마지막 성장동력으로 촉망받는 아프리카의 잠재성을 인식하고 대 아프리카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 아프리카 협력에서는 후발주자이지만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글로벌 시장에서 의 성과, 상호 대등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번영을 모색하는 관점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큰 지지를 받고 있음

■ [EPA/TIPF 추진]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으로 각 지역 및 국가의 현황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무역 및 투자협정이 필요

- 한국은 그동안 FTA를 활용하여 전세계 시장 접근을 확대하는 통상전략을 추진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얻었으나, 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국내 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상호 시장 개방을 원칙으로 하는 FTA를 추진하기 어려움
- 특히 일정 수준의 시장수요와 성장잠재력을 갖춘 아프리카 중저소득국은 한국이 시행 중인 최빈개발도상국 대상 특혜관세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아프리카 신흥국과 통상협력을 위한 틀이 필요함
- 하지만 미국·유럽과 같이 GSP를 실시하여 전세계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일방적 무역 특혜를 부여하기에는 국내 산업 현황이 여의치않아 EU-아프리카 EPA와 같은 비대칭적 양자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임
- '23년부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신흥국과의 통상연대 강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아프리카를 포함한 주요 신흥지역과 경제동반자협정(EPA) 및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추진하고 있음

* EPA: 아프리카 3개국(케냐, 탄자니아, 모로코) 대상, '23.8 협상 개시 절차 준비

* TIPF: 관세양허를 제외한 포괄적 맞춤형 협력 체계로 아프리카 1개국(짐바브웨) 대상, '23.5 산업부 장관 방문시 제안

- 다만, 한국의 시장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 개방에 너무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투자, 디지털 무역, 공급망, 에너지 등 다양한 경제협력 분야와 아프리카 국가의 개발협력 수요를 반영한 기술, 인프라, IT, 인적 협력 등을 포괄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현재 상호주의적 FTA 추진 과정에 맞춰진 국내 제도 및 절차를 비대칭적 시장 개방 및 개발협력 목적을 포함한 EPA의 의의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아프리카 신흥국과의 공동번영을 위한 무역·투자 협정 추진에 대한 국내 여론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AfCFTA를 활용하여 아프리카 역내 시장을 공략하는 한편 아프리카를 거점으로 유럽 및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EPA/TIPF 협상 과정에서 협정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EPA/TIPF를 통해 비관세조치, 투자, 경쟁정책 등 한국 기업의 현지 투자를 가로막는 문제들이 해소되어야 함
 - * 특히 AfCFTA 이행 과정에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통관 및 물류, 교통 인프라, 디지털무역 관련 인프라 및 서비스, 유망 제조업 부문 등에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부문에 대한 시장개방이 필요
 - * EPA 협상에서 비대칭적 시장개방을 허용하는 등 상품 양허에 너무 집중하기 보다는 정부조달, 투자, 디지털무역, 기술협력, 공급망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
 - 아프리카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지 환경에 적응하고 시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정의 이행 과정에서 상호간에 시장 및 정책 정보의 공유, 인력 공동 양성, 애로사항 취합 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이 필요함
- [정책금융 확대] 아프리카에 투자진출하는 한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아프리카의 특성상 수출이나 투자기업이 기업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워 정책금융의 지원없이 경제협력을 논하기가 어려움
 - 아프리카 국가의 대부분이 OECD 정책금융 지원가능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신용등급을 부여받고 있어 기업대출은 물론이고 정책금융 지원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음
 - 결국 국제금융기관 및 다자개발은행의 재원을 유치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투자국의 정책금융을 매개로 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임
 - 아직 한국 기업이 국제개발금융기관 및 다자개발은행의 재원을 활용하는 경험 이 많지 않아 향후 한국의 기업과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국제개발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이 필요
 - * 한-세계은행 협력기금, AfDB 신탁기금 등을 우선 활용하여 성공사례 축적 필요
 - 아프리카에 대한 정책금융의 재원을 확충하는 한편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기업 및 정책금융기관의 노하우를 쌓을 필요가 있음

- * '22년 수출입은행의 수출신용 총지급액 중 아프리카 비중은 2.8%, EDCF 지급액 중 비중은 27.9%, 동년 K-Sure(무보)의 단기수출보험 지원액 중 아프리카 비중은 6.7%, 중장기 지원액 중 비중은 6.4%를 기록
- * '23년 9월, 제7차 한-아프리카경제협력(KOAFEC) 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향후 2년간 약 60억 달러(EDCF 15억 달러, 수출금융 43억 달러, 2,400만 달러 AfDB 신탁기금 등)의 대 아프리카 금융패키지 지원을 약속
-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아프리카 시장에서는 변화에 긴밀히 대응하고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장점이 강조되는데 상대적으로 진출경험이 적고 규모에 따른 진출 리스크가 크다보니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금융의 역할이 중요

■ [개발협력 지원역량 확대] 한-아프리카 협력관계의 핵심인 공적개발원조(ODA) 프로젝트를 더욱 전략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ODA는 규모 면에서 크게 확대되었으며, 한국 고유의 경제개발경험과 기술·교육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독특한 ODA 모델을 구축하였음
- 아프리카 수원국들도 한국 ODA 모델의 비교우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이 강점을 보이는 디지털 기술, 에너지 기술, 인프라 역량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높게 평가함
-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 전략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원조 효과성을 높이는 데 성공했으나, 다양한 아프리카 내 ODA 수요를 모두 포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수원국들의 수요에 기반한 실용적인 개발협력사업의 성과를 아프리카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대 아프리카 ODA 재원의 확보가 필요함
- 다른 공여국들이 에너지나 핵심 광물 자원 확보를 위해 유·무상 원조를 포함한 전략적 접근을 하고있는 만큼 ODA를 포함한 공공외교전략과 경제협력전략 간의 유기적 결합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아프리카의 빠른 인구 증가로 새롭게 등장하는 미래 세대가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의 미래 세대 또한 아프리카의 잠재성과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스포츠 분야에서 미래 세대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

■ [정상회의 정례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정례화하여 정부간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 파트너십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음

- EU 및 회원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터키 등 많은 국가들이 아프리카 대륙 정상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음
- 정부 및 국가 지도자의 의사결정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많아 정부 최고위급 협력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함
-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부간 협력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및 단체, 인사들 간의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기회 창출 가능